

40

고려청자 재현사업 40주년 특별전



강진 천년 비취색 꿈을 펼치다



고려청자박물관

고려청자박물관 학술총서 20

강진



천년 비취색
꿈을 펼치다

강진



천년 비취색 꿈을 펼치다

자료협조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국토지리정보원

무등도요 조장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36호 이용희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한정엽

한국방송정책원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고려청자박물관이 2017년 5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한 고려청자 재현사업 40주년 특별전 “강진, 천년 비취색 꿈을 펼치다”의 전시도록입니다.
2. 전시작품을 주로 수록하였으며, 전시되지 않은 중요한 관련 자료들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Exhibition Opening

특별전을 열며

2017년은 강진군으로서는 여느 때보다 뜻 깊은 해이며, 역사적으로 기념할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강진(康津) 지명 탄생과 전라병영성 축성 600주년이며서 무엇보다 고려청자의 산실(産室)인 강진군에서 1977년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시작한지 40년이 됨과 동시에 고려청자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40년간의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강진군은 1960년대부터 청자가마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은 고려청자 재현이라는 사명감으로 이어져 1970년대부터 청자 재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동안 청자재현은 누군가의 삶과 인생이 되었고, 강진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정성이 깃든 땀과 손길을 통해 강진청자라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했던 재현과정의 발자취와 성과를 선보이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강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강진군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청자제작에 애쓰고 있는 청자 장인 여러분과 고려청자박물관 직원들의 창작의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전 전시자료 협조에 적극 도움을 주신 여러 기관과 개인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 5.
강진군수 강진원

Congratulations

축하의 글

고려청자와 강진군은 우리나라 문화재와 그 생산지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이 지난 과거 속에서의 문화재를 오늘 현재 우리 삶에 다시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4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번 고려청자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고려청자 재현사업 40주년 특별전에서 그 면면이 전시된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1970년대부터 청자재현사업을 가까이서 지켜본 강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고려청자박물관에도 감사드립니다.

강진 대구면과 칠량면에 소재한 청자요지의 존재는 강진 군민들에게 역사의식과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항심에서 시작된 청자재현사업은 우리에게 강진군이 고려청자 문화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 추진 주체도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라는 법인으로 시작해 청자사업소, 청자박물관을 거쳐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이라는 명칭의 행정직제로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소와 박물관을 거쳐간 수많은 우리 이웃들의 땀과 정성으로 현재 모습이 완성되었으니 개인의 삶이 강진군의 역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청자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만큼 강진군의 청자재현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할 근간사업입니다. 이번 특별전시가 고려청자 문화유산 보존과 청자산업 발전에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특별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 5.

강진군의회 의장 김 상 윤



01

고려청자와 강진

- 수집과 감상의 대상, 고려청자
- 100년 역사의 강진 청자요지 조사



수집과 감상의 대상
고려청자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靑瓷)를 일컫는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청자를 ‘沙器’^{사기}, ‘砂器’^{사기}, ‘綠瓷’^{녹자}, ‘靑陶器’^{청도기}, ‘靑沙(器)’^{청사기} 라고도 했다. 도자기의 종주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원대(元代) 말부터 청자에서 백자로 유행 흐름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 초에 백자 중심 생산체제로 변화하였다. 앞 시대의 문화유산으로서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과 수집은 조선시대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중국 송대(宋代) 고문헌에서 고려청자의 비색을 천하제일(天下第一)로 칭송했던 내용도 익히 알고 있었다.

간혹 고려시대 분묘나 건물지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기도 하여 문헌에 기록된 예도 있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고려후기의 문신이었던 안향(安珦, 1243~1306)의 집터에서 청자(高麗秘色瓷尊)가 나왔는데, 학 여섯 마리와 피어오르는 구름송이 열여덟 개가 그려져 있었다고 했다. 이 청자에 대해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높이가 ‘一尺’, 용량이 ‘一斗’라고 했으니, 지금으로 하면 높이 31cm 가량, 용량 6리터 정도의 운학문이 상감된 매병이었을 것이다.

秋晚金友喜香閣 寄水仙花一本 其盆高麗古器也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六卷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지인에게 선물받은 수선화 화분에 대해 시를 지어 남겼다. 그 시의 제목에서 다산은 화분을 ‘高麗古器’라고 기록하였다. 말 그대로 고려시대의 옛 그릇이라는 뜻이니 이것이 청자인지, 도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조선시대 문인들이 어두운 빛깔과 질박한 느낌의 도기를 화분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청자일 가능성이 높다.

上元之夕 金生中游 專示平安兩字 金又以勻什七言並附而來 非非想中 欣
聳十丈 捧讀回環 江調老青 峽韻健碧 大年稀有 眞力彌滿 古琴梅癡 老蒼秘
色 歲久時換之際 愈覺精采殊勝

【『阮堂全集』 3卷 書牘 三十三】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도 권돈인(權敦仁)의 시를 칭송하면서 ‘마치 옛 거문고의 매화 흔적갈기도 하고, 옛 청자의 비색갈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고려청자의 비색을 직접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다.

100년 역사의 강진 청자요지 조사

1914년 4월 따스한 봄날, 대한제국 이왕직박물관(李王職博物館)은 발굴단을 파견해 강진 대구면 향동, 용문, 당전, 미산 마을의 청자요지를 조사하고, 그 중에서 9기(基)의 가마를 발굴했다. 발굴단의 대표인 이왕직의 사무관이었던 스에마츠 구마히코(末松熊彦)였다. 이미 1년 전인 1913년 봄에 강진 청자요지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발굴조사가 실시된 것은 스에마츠 구마히코의 동생인 스에마츠 다미히코(末松多美彦)와 연관되어 있다.

원래 강진군에는 경선궁(慶善宮,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英親王)의 생모인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嚴氏)의 거처)의 소유지가 있어서 매년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상례였었다. 스에마츠 다미히코는 1907년부터 대한제국 황실의 세전장원(世傳莊園)과 기타재산을 관리하는 주사로 근무했는데, 1914년 3월 강진 출장중에 대구면에서 수습한 청자 편을 가지고 올라가 형에게 보여준 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달 4월 곧바로 대규모 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발굴조사 내용은 6월 3일부터 6일까지 연재된 매일 신보(每日申報) 기사에서 그 윤곽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발굴단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청자를 만들 수 있는 점토(粘土)가 있는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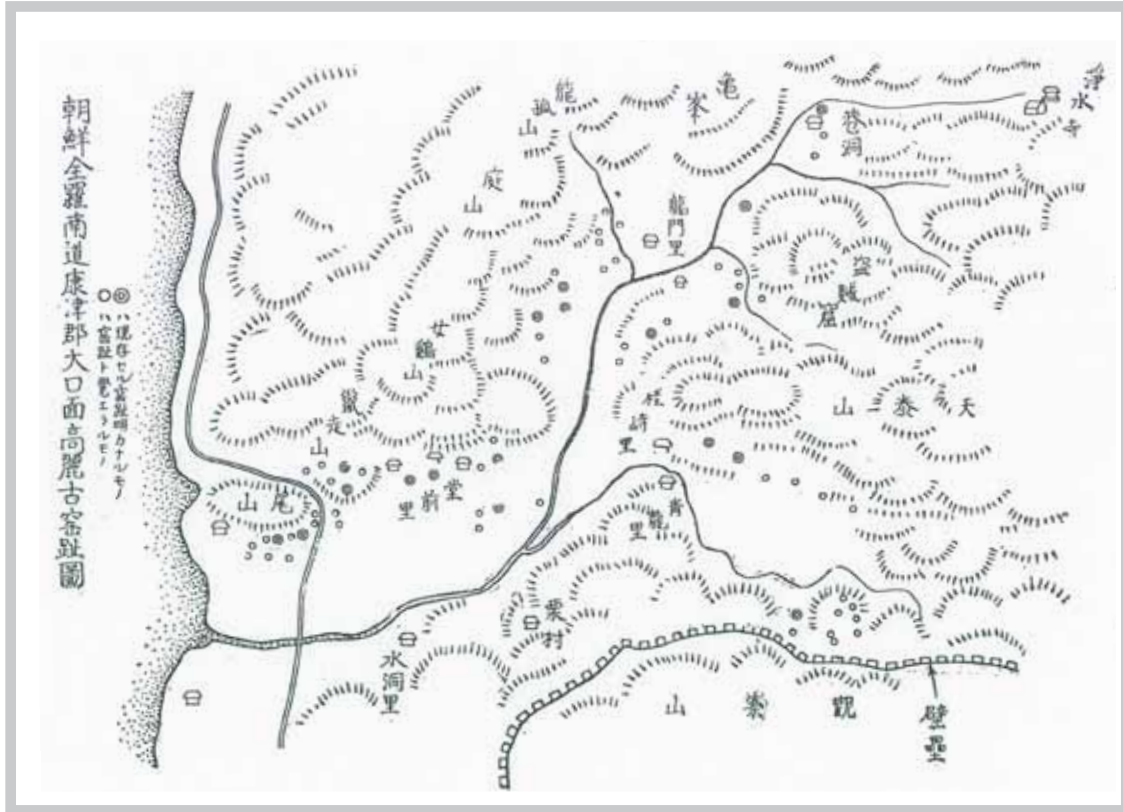
▶당전(堂前) 제1요 발굴(1914년)



▶향동(巷洞) 제1요 발굴(1914년)



▶정산(庭山) 제2요 발굴(19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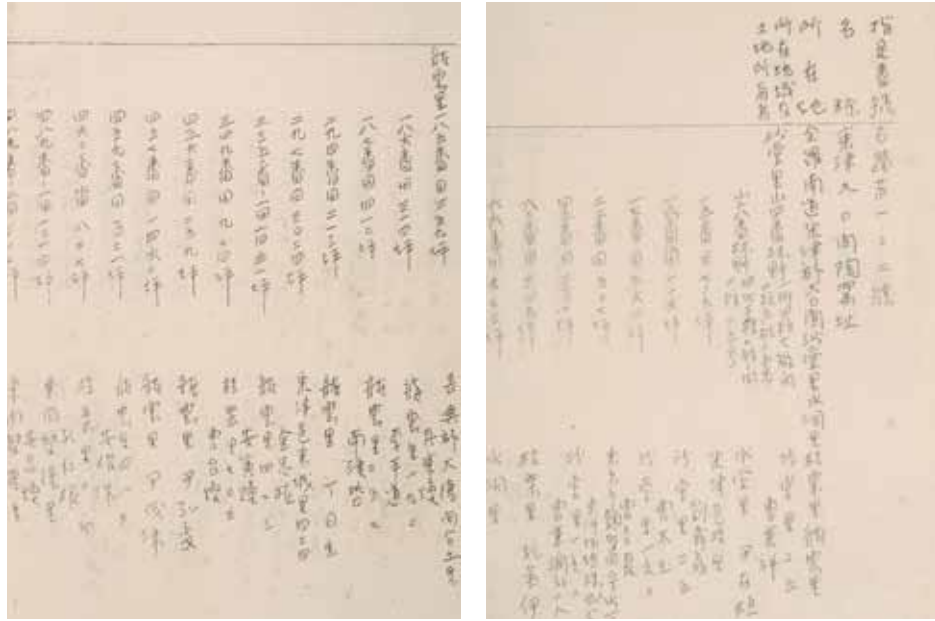
▶ 강진군 대구면 요지분포도 (1925년, 中尾万三 작성)

1914년 조사 당시에 강진 청자요지 분포도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중에는 1925년에 나카오 만쵸(中尾万三)가 그린 요지 분포도가 최초이다. 나카오 만쵸는 1925년 초에 며칠간 시찰의 성격으로 강진을 방문한 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분포도를 게재했기 때문에, 아마도 1914년 조사 시에 작성된 분포도를 참고하여 그대로 그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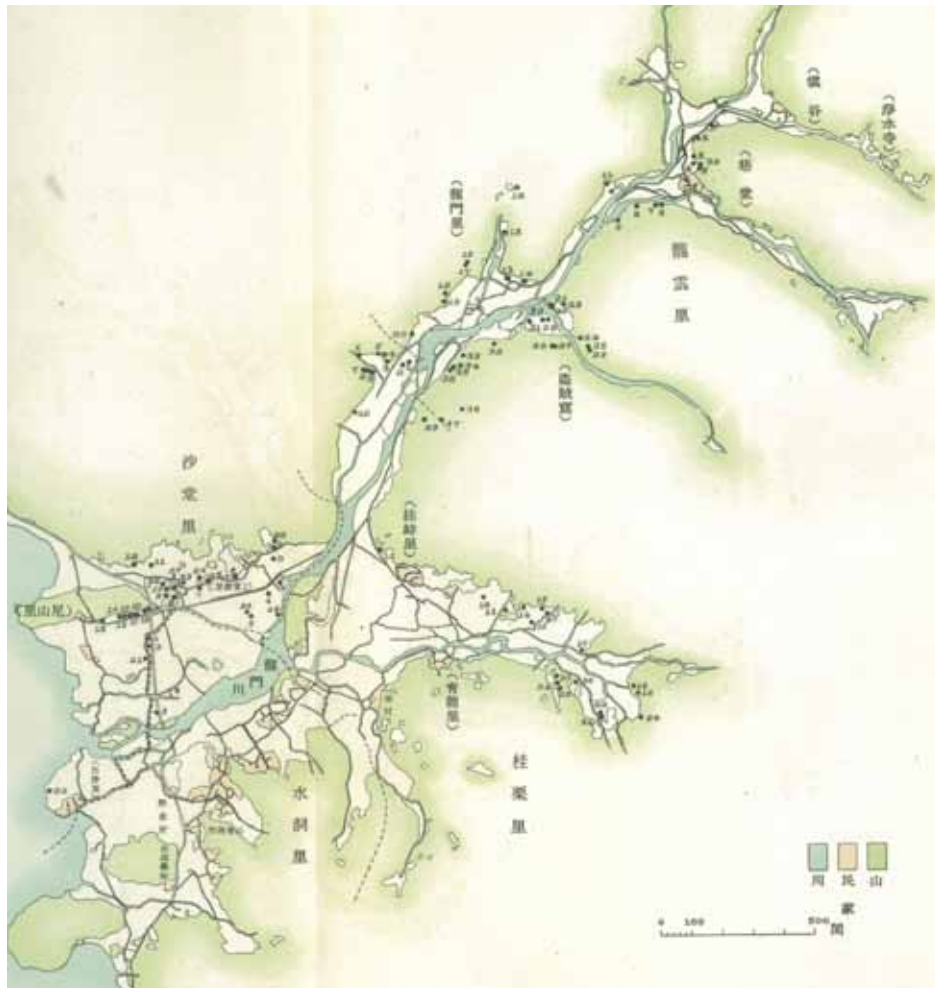
분포도에는 요지가 확실한 곳은 ◎ 으로, 요지로 추정되는 곳은 ○ 으로 표시하였다. ◎ 은 18개소, ○ 은 47개소로 총 67개소이다. 아쉬운 점은 표시된 요지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 강진 청자요지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계치마을 뒷산인 만경대(萬景臺)가 천태산(天泰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 없어진 지명이나 마을 이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산(尾山) 마을과 당전(堂前) 마을 사이에 야트막한 야산이 서주산(鼠走山)이었고, 현재 난산(卵山) 마을은 당시에 울촌(栗村)이었다. 그래서 현재 계치, 청룡, 난산 마을을 합쳐 계율리(桂栗里)라고 하는 것이다.

또 당전마을 뒤편 여계산(女鷄山)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봉우리들이 정산(庭山), 용고산(龍孤山)이며, 현재 용운저수지 도로건너 편 봉우리를 귀봉(龜峯)이라 했다. 1944년 자료에는 용고산 위쪽으로 옥채치(玉釵峙)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용고산과 귀봉사이에 용류산(龍柳山)이 있는 지도도 있다.



▶▶ 보물고적천연기념물지정통지 공문 (고적 제102호 상세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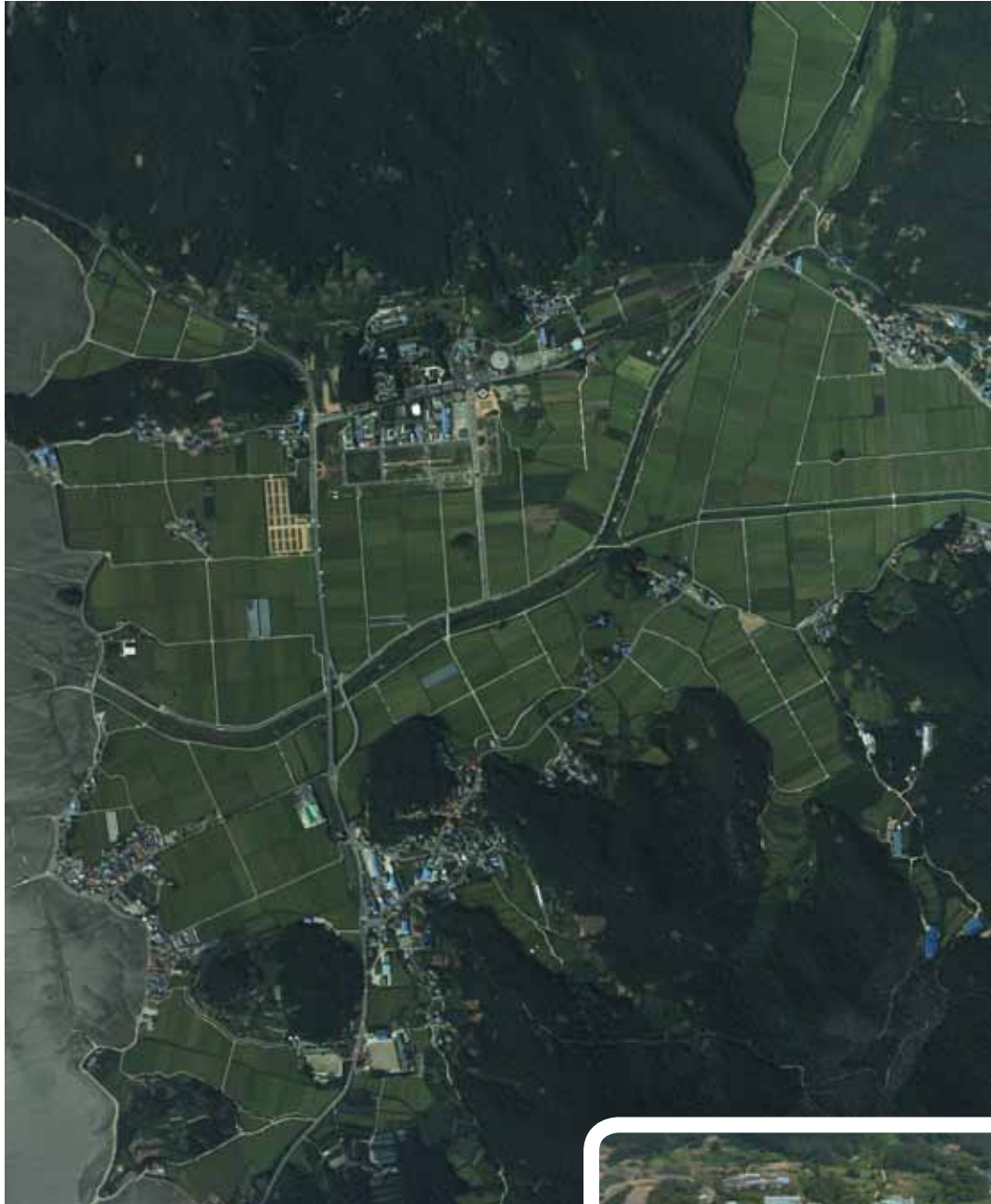
▶▶ 고적 제102호 강진 청자요지 분포도 (1944년 이전, 조선총독부박물관)

1948년과 2013년의 대구면 항공사진이다. 1948년에는 사진의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바다로 흘러가는 대구천의 형태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논두렁 경계선과 초가지붕이 정겹다.



▶ 대구면 사당리 항공사진 (1948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 대구면 사당리 항공사진 (2013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 강진 대구면 계치마을에서 바라본 강진만



▶ 대구천 하구



02

고려청자 재현사업 40년, 그 길을 따라 걷다

- 역사적 사명감과 자긍심
-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와 '가마솥' 축조
- 고려청자사업소에서 고려청자박물관까지



역사적 사명감과 자긍심

1945년 광복이후 국립박물관(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발굴조사한 청자요지도 강진이었다. 1964년부터 70년까지 강진 대구면 사당리 당전마을 요지(사당리23호 요지)가 발굴되었다.

최고 품질의 다양한 청자는 물론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된 청자기와와 함께 수많은 명문(銘文)이 새겨진 귀중한 자료가 천년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와중에 잠시 잊고 있었던 고려청자요지가 지역 문화재로서 역사적으로 입증되면서 강진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사명감도 점차 뚜렷해져갔다. 지역 주민 일부는 발굴조사단 인원으로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73년부터 사당리41호 요지(현재 고려청자박물관 우측 보호각 전시)가 또 발굴되면서부터는 강진 군민들 스스로 고려시대의 찬란했던 청자문화를 다시 한 번 재현해보고자 하는 뜻이 하나 둘 모아지기 시작했다.

사실 강진의 흙으로 고려청자를 재현하려는 노력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33년 11월 25일 기사에는 경성(京城)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도자기 직공이 고려청자를 만들었는데, 그 원료가 전라남도 강진의 서주(鼠走)에서 가져온 흙이었다고 한다.



서주는 미산마을과 당전마을 사이에 있는 야트막한 동산으로 사당리 9호, 사당리 10호, 사당리 26호 요지가 있는 곳이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도 청자 유약 원료로 여기의 흙을 채굴해 사용한 적이 있다. 1928년과 1938년 강진 청자요지를 조사한 노모리 켄(野守健)도 사당리 9호에서 점토를 채굴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194년 이왕직박물관에서 매입했다고 한 땅도 아마 서주산 인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청자라는 지역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자는 움직임도 이미 1930년대부터 강진군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었다. 매일신보(每日申報) 1936년 8월 1일자 기사를 보면 대구면 면장이 전국 각지에서 고려청자 요지를 시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할만한 청자 편이 진열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해서 군민들을 모아 요지 보존을 위한 ‘고적보존회(古蹟保存會)’를 조직하고, 청자 편을 진열할 진열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 동아일보 1933년 11월 25일



▶ 매일신보 1936년 8월 1일

광복이후 1966년 전남일보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짧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국내외 고고학자들이 사당리 요지를 발굴하면서 출토유물을 놓고 수 백만원의 보물이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보탬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마을 청년들이 청자요지를 보러 오는 외지사람들을 위해 마을박물관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용희(李龍熙, 당시 28세), 이준호(李俊浩, 당시 28세), 장준호(張俊浩, 당시 28세)등이 나서서 박물관 설치 운동을 추진했고, 공동작업장과 찬조금 4천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 전남일보 1966년 7월 13일



▶ 사당리 23호 요지 발굴조사 사진 (1960년대)



▶ 사당리41호 발굴조사 사진 (1973~1974년)

청자재현사업 추진위원회와 '가마솥' 축조

1960년대 사당리 23호 요지와 1970년대 전반 사당리 41호 요지가 발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강진의 뜻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려청자를 재현해 보자는 의견이 형성되어 갔다. 1975년 당시 이용기(1975. 01. 09.~1975. 12. 31. 재임) 군수 역시 고려청자 재현을 숙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본격적인 재현사업 추진은 다음 군수인 정채균(1975. 12. 31.~1979. 05. 03. 재임) 군수로 이어져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진군은 1976년 10월 20일 '고려청자도요窯복원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 문화공보실에 제출하고 토지매입, 재현가마 구축, 작업장 신축 등을 위해 사업비 2천 3백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강진군 자체적으로 1976년 12월 1일 1,166만원을 들여 사당리 41호 요지 보호각 신축, 보호철책공사, 안내판 설치, 관리사무소 신축, 석축 및 배수로 공사 등을 착공하기 시작했다.

(전남매일신문 1976년 10월 22일)



▶ 관리사무소(좌)와 안내판(우)



▶ 강진 청자요지 안내판



▶ 사당리 41호 요지 보호각



▶ 현재 고려청자박물관 부지 (1977년)

1977년 1월에는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강진군의 특수사업으로 확정했다. 198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했으며, 요지발굴사업, 보호시설, 청자재현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요지발굴사업은 1987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구면 사당리 일대 정밀발굴조사를 계획했으며, 보호시설로는 출토품 전시기념관 1동(40평), 연구실 및 관광휴게소 1동(40평), 요지 보호각 4동 등이었다. 재현사업으로는 1,000만원을 들여 가마솥 시설과 작업장(50평)을 갖추어 기능보유자 조기정씨와 이용희씨로 하여금 고려청자를 재현시킬 계획이었다.

한편 강진군은 청자재현 작업장 시설비 500만원과 요지보호구역 토지매입비 65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김성진 문공부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전남일보 1977년 6월 20일)

6월 15일 청자재현은 기능자 조기정, 이용희에게 위탁하고,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6월 17일 민·관 16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강진군은 재현작품 시험번조를 위한 가마 축조와 기계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였고, 조기정, 이용희의 지휘 하에 7명의 도공들이 작품제작을 시작하였다. 강진군은 이와는 별개로 대구면 도요지 곁에 40평짜리 기념관을 세우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이 사업에는 국비 1,500만원, 지방비 6,429천 원을 투입하였다.

(전남일보 1977년 7월 11일)

사단법인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는 정채균 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김창식 대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6명의 고문과 5명의 위원, 간사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는 출범 바로 다음날인 6월 18일에는 사당리 41호 가마를 본따 만든 ‘강진요’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장소는 현재 고려청자박물관 청자빛기체험장 옆에 위치한 강진요 1호 자리였다. 당시 문화공보부 김성진(金聖鎭) 장관, 문화재 관리국 김석룡(金石龍) 국장, 국립중앙박물관 최순우 관장, 고건 전남도지사, 관내 주요 기관장, 추진위원회 이사, 그 외 지역 주민과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공보부)와 문화재청(당시 문화재관리국) 수장(首長)이 참석할 정도로 국내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였다. 당시 광주에서 청자를 재현하고 있었던 조기정도예가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보다 더 뛰어난 고려청자 재현을 목표로 한 것이다.

청자재현 가마 기공식 장면 (1977년 6월 18일)



▶ 정채균, 최순우, 김성진, 김창식, 고건 (왼쪽부터)



▶ 정채균, 김석룡, 조기정, 김성진, 이용희, 고건, 김창식 (왼쪽부터)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1977년 당시)	비 고
고문	길전식(吉典植)	공화당 사업총장	
고문	황호동(黃鎬東)	국회의원	
고문	고 건(高建)	전라남도지사	
고문	최순우(崔淳雨)	국립중앙박물관장	
고문	정양모(鄭良謨)	국립중앙박물관 학예관	
고문	최몽룡(崔夢龍)	전남대학교 교수	
위원장	정채균(丁埰鈞)	강진군수	당연직
부위원장	김창식(金彰植)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위원	조기정(曹基正)	전남문화재전문위원, 도예가	청자재현 담당
위원	유수현(劉守鉉)	전 국회의원	
위원	김현장(金炫漳)	서예가	
위원	김기삼(金淇森)	조선대학교 교수	
위원	성상원(成相沅)	강진군 문화공보실장	
간사	이용희(李龍熙)	도예가	청자재현 담당
감사	윤두현(尹斗鉉)	강진군 재무과장	
감사	박봉주(朴奉柱)	강진군 감사계장	



▶ 최순우, 정채균, 김성진, 고건, 조기정 (앞줄 왼쪽부터)



▶ 정채균, 최순우, 김성진, 고건 (중앙 왼쪽부터)

그런데 기공식 당시 현수막에 인쇄된 ‘가마솥’이란 글자가 재미있다. 1973년 사당리 41호 가마가 발굴될 당시 언론에서도 ‘고려청자 가마솥 발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다.

가마솥이라고 한데에는 역사기록에 근거한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 『성종실록』(成宗實錄) 1493년 기록에는 사옹원(司饔院) 제조(提調)였던 유자광(柳子光)이 왕에게 백자가마 구조를 설명하면서 ‘입부’(入釜)와 ‘와부’(臥釜)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와부는 불꽃이 어지럽게 굽이쳐 그릇이 찌그러지기 쉬운데, 중국에서 입부로 구워 만드는 방법은 불기운이 곧게 올라가므로 구운 그릇이 그대로여서 매우 유리하다”고 하였다.

도자기를 굽는 시설인 가마를 한자로 표기할 때 고려시대에는 ‘窯’, 조선시대에는 ‘窯’ 외에 ‘釜’라는 글자를 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가마솥’은 ‘釜’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어서 만들었던 것이다.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는 강진요 1호 가마 축조를 완료하고, 12월 27일 오후 3시에 첫 초벌구이를 시작했다. 이듬해 1978년 1월 29일과 30일, 이를 동안 본벌구이를 거쳐 드디어 2월 3일 청자재현의 첫 번째 결과물이 세상 빛을 보게 되면서 강진의 청자재현 가능성이 재인식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설확충과 수 십차례에 걸친 시험번조과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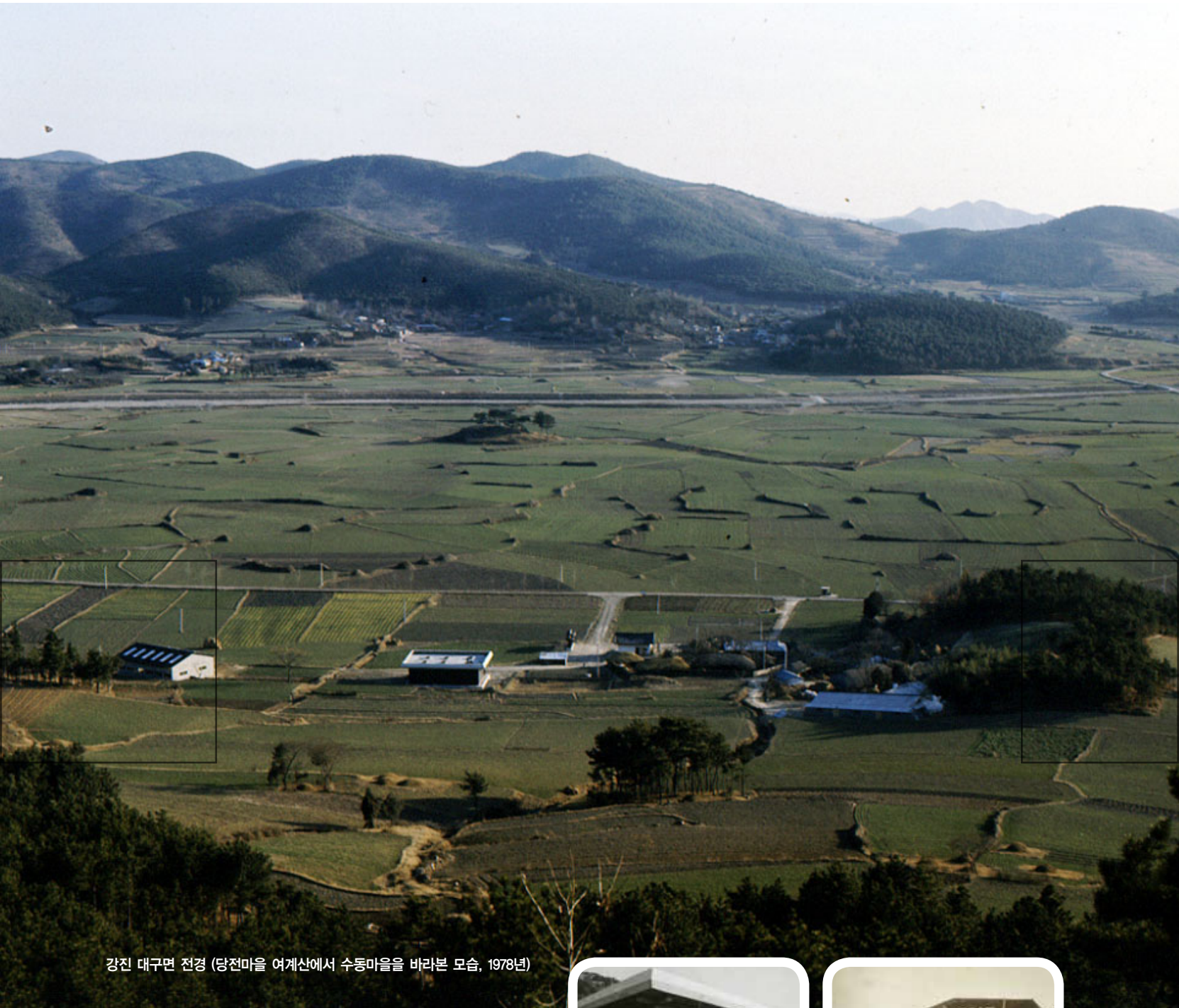


▶ 전남매일신문 1973년 11월 5일



▶ 강진요 1호 축조 모습

▶ 강진요 1호와 작업장



강진 대구면 전경 (당전마을 여계산에서 수동마을을 바라본 모습, 1978년)



▶ 고령청자전시관



▶ 사당리 41호 요지 보호각 (1978년)



▶ 강진요 첫 초벌구이 (1977년 12월 27일)





▶ 1978년 2월 3일 요출

1978년 2월 3일 첫 시험작품 요출은 신문, 라디오, TV 등 각종 언론과 대한뉴스에 소개되면서 “손길따라 피는 슬기”제목으로 영화화 되어 해외에까지 홍보되기도 했다.

몇 차례의 시험번조 결과 11월에는 좀 더 효율적인 작품 재현을 위해 가마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9년 2~3월에 가마바닥에 계단(階段)을 설치하고, 화구(火口)도 마련하는 등 가마 구조를 대폭 축소, 조정한 후 4월부터 다시 작품을 생산 하였다.



1978년 2월 제1회부터 1981년 11월까지 완제품 요출은 총 32회에 걸쳐 진행했고, 3,257점을 시험번조하여 1,237점(38% 성공률) 생산 했다. 32회까지의 번조일지는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회~32회의 청자 작품 생산내역

순서 / 구분	요출 일시	窯入窯出 점 수	보 존 품				시 험 결 과	
			계	A급	B급	C급		
합계	(32회)	3,257점	1,237	124	488	625		
1978	1회	2. 3.	150	32	6	17	9	가마 적격여부(適格與否) 성공적 가능성 추정
	2회	6. 10.	150	29	6	23		제품 기본원료 시험, 강진 점토토 우수성 인정
	3회	8. 27.	150	5		3	2	요지 부근 유약 원료시험 심층부, 원료채집 필요성
	4회	10. 6.	120	11	2	9		유약 두께와 상태 시험
	5회	10. 17.	120	77	5	22	50	환원(還元)번조 방법 우수작품 가능성 판단
	6회	11. 7.	150	55	2	3	50	가마 구조변경 개조 필요성 판단
1979	7회	4. 30.	110	56	22		34	작품의 산화(酸化) 방지 연구
	8회	6. 4.	110	26	3	11	12	가마의 전후(前後) 온도 균일 추진 연구
	9회	7. 17.	109	23		1	22	유약 熱度未達로 굴뚝을 넓혀야겠다고 판단
	10회	8. 16.	110	29	3	7	19	창불뉘 때 흡인력(吸引力) 조절 필요성 판단
	11회	10. 16.	96	24	1	6	17	유약을 두껍게 시유(施釉)함으로써 발색(發色) 연구
	12회	12. 27.	80	38		18	20	가마 내부 칸막이 철거의 필요성 판단
1980	13회	1. 7.	80	24		5	19	逆風이 있을 때 所要熱度 미달
	14회	4. 4.	80	19		10	9	공기 흡인(吸入) 상태 관찰 연구
	15회	8. 2.	80	31		12	19	제2불통에서 열을 올리려는 것을 지양, 첫불통 녹인 후 가열
	16회	8. 27.	80	36	3	19	14	유약이 두터울 때 열온도 주의
	17회	9. 9.	90	38	5	14	19	가마내부에 습기 건조 후 본별구이 시행
	18회	9. 24.	80	38	6	27	5	前後 작품이 균일하게 하는 번조방법 연구
	19회	10. 5.	80	42		31	11	산화(酸化) 방지책 연구시험
	20회	11. 25.	80	36	1	15	20	白磁는 유약을 얇게 할 것
	21회	12. 7.	80	27	1	12	14	온도의 미달, 산화(酸化) 방지책 계속 연구
1981	22회	4. 23.	80	45	5	17	23	흡인력(吸引力)을 줄이고 서서히 가열방법 연구
	23회	5. 27.	90	4		19	21	연구명을 많이 댔을 때 온도 미달
	24회	6. 9.	95	48	5	17	26	흡입상태는 고정시키고 창불 횟수 늘리는 것이 산화방지
	25회	6. 24.	129	61	14	32	15	녹힘불을 길게 때는 것이 우수한 작품 번조
	26회	9. 8.	80	36	5	16	15	전면 환원(還元) 상태 양호
	27회	9. 24.	93	51	9	22	20	유약이 두터울 때 가열 방법연구
	28회	10. 6.	92	42	3	20	19	산소 주입량 측정 시험
	29회	10. 16.	104	52	3	20	29	녹힘불상태에서 산소 주입량이 과다했을 때 산화(酸化)
	30회	10. 27.	74	52	2	25	25	계절에 따른 번조계획 고려
	31회	11. 4.	136	52	4	20	28	기상변화가 온도와 산화(酸化)에 영향
	32회	11. 12.	99	62	8	15	39	고열(高熱) 번조측정 시험



▶ 재현품 전시회 개막식 (1981년 11월 24일)

1981년 11월 24일~30일까지 7일간까지 고려청자전시관에서 우수한 재현작품 100여 점을 선정하여 '제1회 고려청자 재현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82년 10월 24일부터는 광주시 남도예술회관에서 제2회 다기류(茶器類) 30점을 전시하였다. 일본 NHK TV방송에서 동남아 5대 대표문화원으로 고려청자를 선정하여 기획취재를 하기도 했으며, 일본 도예가인 심수관(沈壽官)이 본인 회사와 자매결연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일선에서 이끌어간 사람들은 도예가 조기정, 기술간사 이용희, 소성사 손양호, 성형사 안열수, 조각사 김광철, 정형사 홍성준·윤재진씨 등 7명의 도공들이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만4년간 침식을 같이하며 고려청자 재현에 정열을 쏟고 있다.



기술간사였던 이용희씨는 1978년 1월 29일 첫 본별구이를 이렇게 회상하였다. 점화한지 10시간이 다 못되어 역풍이 오면서 화염이 거꾸로 거스르는 요변이 일어났다. 실패였다.

10년 동안의 도공생활 중 그때처럼 어려운 시련은 없었어요. 차라리 이 가마 속에 내 몸을 던져 활활 타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민 정병천씨(50)는 청자의 단절에 눈물 뿌렸던 옛 할아버지들의 유업을 이은 것이 오직 자랑스러울 뿐이라고 한다.

손이 아리도록 도토를 개고 허리뼈가 굽도록 불질을 해도 내 월급이야 고작 20만원 안팎이지만 이 노릇이 돈보고 하는 겁니까.

성형을 다듬는 김재숙양(22)은 강진요의 고려청자가 세계로 나가는 날 다시 고려의 대명사 마을이 될 것이라며 가슴 부풀어 있다.

도토 좋고 땀나무 많은 것도 원인이지만 예부터 해상수송이 쉽고 손재주 많은 도인들이 있어 우리마을이 더욱 자기고장이 됐답니다.

(1981년 7월 21일 중앙일보)



▶ 전시관 내부시설



▶ 박영수, 윤재진, 김송기, 김재숙, 윤효심, 이용희, 정병천 (왼쪽부터)



▶ 1978년 10월



▶ 정병천, 김송기, 김재숙, 박영수, 김광철, 이용희
(왼쪽부터, 1980년 10월)



▶ 1981년 5월



▶ 1982년 10월



▶ 1982년 10월



강진군은 1977년부터 1982년 12월 말까지 77,909천원을 들여 9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재현품 제작에 투입된 예산은 총 8천만원 (도비 3천만원 / 군비 4천만원 / 위원회 자체 1천만원)이었다.

기반시설 내역 (1978~1982)

시설명	사업량	설치연도	사업비
구(舊) 요지 보호각	2개소, 120평 (397㎡)	1975	13,650,000원
재현작품 전시관	1개소, 38평 (126㎡)	1976	20,359,000원
강진요	1기, 80평 (264㎡)	1977	5,000,000원
작업장	1동, 20평 (66㎡)	1977	550,000원
갑발공장	1동, 20평 (66㎡)	1978	9,850,000원
화장실 외 3종		1978	28,500,000원

▶ 부지확보 : 7,768평(25,680㎡) | 국립박물관 매입 : 1,359평(4,492㎡) | 강진군 매입 : 6,409평(21,186㎡)

재현품 제작에 종사한 인력은 성형사, 정형사, 조각사 각 1명과 그 밑에 각 분야의 보조 1명(성형보조, 정형보조, 조각보조)씩 총 6명이 고려청자재현업 군비 일용인부 임금으로 근무했다.

1982년 말까지는 총 42회를 번조하여 1,843점의 작품을 생산했고, A급은 174점, B급은 704점, C급은 965점이었다고 한다. 1981년까지의 번조일지와 1982년 말까지의 작품수량별 품질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마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재벌구이(再燻) 요입(窯入) 작품수량 대비 품질별 요출(窯出) 작품수량의 성공률이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A급의 작품수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품질	품질구분(점)			합계	窯入 수량	성공률(%)
		A급	B급	C급			
합 계		174점	704점	965점	1,843점		
1978년		21	77	111	209	840	25%
1979년		29	43	124	196	615	32%
1980년		16	145	130	291	730	40%
1981년		58	223	260	505	1,072	47%
1982년		50	216	340	606		



고려청자사업소에서 고려청자박물관까지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시작한 지 4년째인 1982년, 강진군은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려청자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고려청자 재현사업과 함께 다산초당 관리업무를 한데 묶어 사업소 설치 승인을 1982년 12월 27일 전남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요청하였다.

(강진군 고려청자 재현사업소 설치조례승인신청)



▶ 1982. 12. 27. 일자 공문



▶ 수비장 (1980년대)

사업소의 운영 인력은 당시 기능사 6명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보수가 적고 신분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산유적지를 포함하여 일반직 11명, 기능직 11명 총 22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신청은 1983년 1월 19일 재검토 결과가 나와 반려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85년 4월 16일 다시 한 번 전라남도에 고려청자 사업소 설치승인을 신청하여 약 3개월 후인 7월 3일 결국 고려청자 사업소 설치를 승인받았다.

그리고 10월 19일 고려청자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승인 신청을 통해 12월 10일 고려청자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정(안) 공포함으로써 1986년 1월 7일 고려청자사업소의 운영이 시작된 것이다. 근무인원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별정 7급 1명, 별정8급 2명, 고용 1명으로 총 6명이었다.



▶ 고려청자사업소 개소식 (1986년 1월 7일)

1977~1990년의 사업실적 및 관광객 현황

사업실적

(단위 : 점, 천원)

연도 \ 구분	소성회수	생산량	판매수입(A)	지출액(B)	수익액	비고
계	231회	16,024점				
1977	1회	209				재현 연구개발
1978	5회	19				
1979	6회	196				
1980	9회	291				
1981	11회	541	12,500	12,500		성공률 20% (판매개시)
1982	12회	747	18,400	18,400		
1983	13회	605	26,000	26,000		
1984	25회	924	16,800	16,800		
1985	25회	977	22,400	22,400		
1986	20회	1,879	37,000	82,000	- 45,000	
1987	22회	1,991	40,000	91,000	- 51,000	성공률 98% (2%파기처분)
1988	25회	2,055	80,000	102,000	- 42,000	
1989	26회	2,609	132,000	118,000	4,000	
1990	31회	3,262	184,000	128,000	56,000	

관광객 현황

() 내에서는 계 숫자에 미포함

연도 \ 구분	계	국내	국외	비고
계	275,000명	275,000명	(1,913)명	
1977	5,000	5,000	(15명)	외국인의 경우 일본 학계출신의 관광객임
1978	9,000	9,000	(20명)	
1979	13,000	13,000	(100명)	
1980	15,000	15,000	(50명)	
1981	18,000	18,000	(60명)	
1982	17,000	17,000	(30명)	
1983	19,000	19,000	(60명)	
1984	18,000	18,000	(90명)	
1985	19,000	19,000	(90명)	
1986	22,000	22,000	(98명)	
1987	24,000	24,000	(100명)	
1988	26,000	26,000	(500명)	
1989	35,000	35,000	(300명)	
1990	35,000	35,000	(400명)	

고려청자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자재현 사업의 규모 확대,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 관광 상품화 강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작품생산 직원 6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1987년부터 사업소의 직제 개편과 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91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1991년 4월 3일 총 인원 22명(16명 증원)의 직제개편과 정원 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7월 23일 8명을 증원하는 내역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고려청자 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연구개발 부서를 분화시켜 체계적 운영을 꾀하였다.

정원승인 내역 (1991년)

현 행	개 정
정원 : 6명	정원 : 14명
<p>소 장_ 지방행정6급 : 1명</p> <p>직 원_ 지방행정7급 : 1명 지방별정7급 : 1명 지방별정8급 : 2명 지방기능(경비) 10등급 : 1명 (일용인부 : 13명)</p>	<p>소 장_ 지방행정 5급 : 1명</p> <p>서 무 계 장_ 지방행정 6급 : 1명</p> <p>연구개발실장_ 지방별정 6급 : 1명</p> <p>직 원_ 지방행정 7급 : 1명 지방별정 7급 : 1명 지방별정 8급 : 2명 지방기능(화공) 7등급 : 1명 지방기능(화공) 8등급 : 2명 지방기능(화공) 9등급 : 2명 지방기능(화공) 10등급 : 1명 지방기능(경비) 10등급 : 1명</p>

사무분장표(1991. 9. 16. 강진군 규칙 제690호)

계	분 장 사 무
사무계	<p>문서 수발 및 공인관리</p> <p>예산, 경리, 재산관리</p> <p>당직근무 명령 및 소내 복무단속</p> <p>고려청자재현사업의 자료 및 기록 보존</p> <p>고려청자재현품 관리 및 판매</p> <p>고려청자 구요, 사적지, 시설 보호관리</p> <p>주요 내방객 안내</p> <p>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p> <p>소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연구개발실	<p>청자 재현사업 계획 수립</p> <p>청자 재현품 생산(성형, 정형, 소성)에 관한 사항</p> <p>재현품의 감정 및 가격 통제</p> <p>청자재현 연구 및 신기술 개발</p> <p>청자 재현 작업일지 기록</p> <p>기타 청자 재현사업과 관련된 사항</p>

청자재현사업과 함께 강진의 청자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강진군은 1991년~1992년에 걸쳐 해강도자미술관에 대구면과 칠량면의 청자요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의뢰했고, 총 188개소의 청자요지의 분포도와 각 요지별 특징과 대략적인 운영시기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었다.

강진군은 1991년에 청자요지 지표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작은 전시관을 대신하여 대규모의 박물관을 짓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결국 1997년 9월 3일에 강진청자자료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고려청자사업소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체제였다.

2006년에는 강진청자자료박물관을 ‘강진청자박물관’이라는 이름 하에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전남 제 4호)하고, 이듬해인 2007년 5월에는 강진군 행정직제상의 고려청자사업소도 ‘청자박물관’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강진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 고려청자 문화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직제는 물론 박물관의 명칭까지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 문화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2005년에 신축한 도예문화원에 터치스크린, 키넥트, AR, VR 등 다양한 체험방식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을 2015년에 개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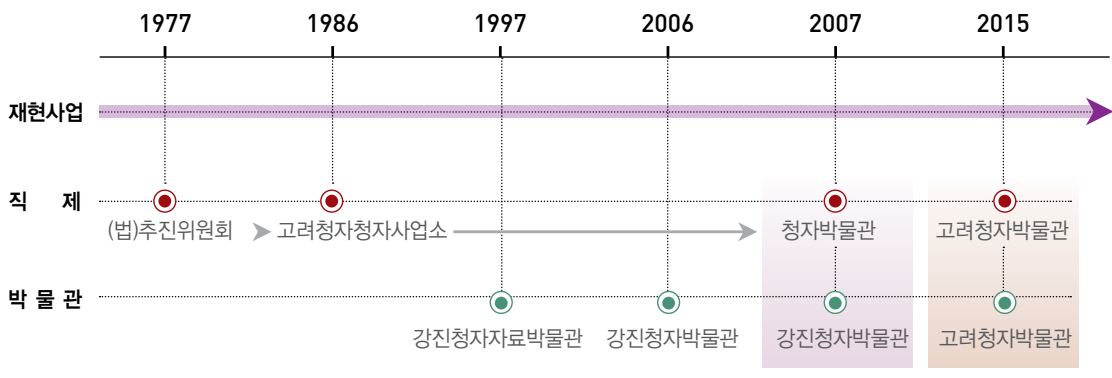


▶ 고려청자전시관 (1990년대 초반)



▶ 강진청자자료박물관 건축공사 모습 (1990년대 중반)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추이





▶ 고려청자박물관



▶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은 사무팀, 전시운영팀, 청자육성팀, 연구개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장을 비롯하여 총 3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팀은 박물관의 운영과 예산, 시설물 관리, 체험장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시운영팀은 상설전시와 특별 전시, 유물관리, 학술심포지엄과 청자공모전, 디지털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자육성팀은 관요의 작품 판매와 위탁 및 경매, 개인요 업체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연구개발실은 연구개발실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직원들이 청자 작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



03

청자가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 청자를 노래하다
- 청자로 맺어진 인연
- 시대를 반영한 청자우표



청자를 노래하다

요즘은 민족이라는 단어의 정체성이 예전보다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이라는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무엇보다 자주독립과 민족의 정체성,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었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려청자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변하는 문화재중에 하나로서 독자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1945년 광복이후부터 고려청자는 민족주의 문학의 작품 소재가 되기도 하고, 전통 문화유산의 홍보와 대외적 과시를 위한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고려청자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 속에는 저마다 그 시대상이 담겨져 있다. 강진의 청자재현사업도 관련된 인물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 월탄(月灘) 박중화 (朴鍾和, 1901~1981)

우리나라 역사소설의 새 지평을 연 월탄 박중화가 1946년에 지은 청자부라는 시이다. 박중화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끝내 거부하고,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작품속에 투영시켰다. 그의 머리와 가슴에 물결치는 것은 언제나 민족과 역사의식이었다. 그의 문학론은 간결하다. 역사의식이 담긴 작품이라야 좋은 작품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동국대·성균관대·연세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서울신문 사장, 예술원 중신회원 및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 시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으며, 1980년에는 이 시에 곡을 붙여 대중가요로도 발표되었다. (서효석 작곡, 강별철 노래) 1985년에는 작곡가 김규현이 창작 합창곡으로도 작곡하기도 했다.

靑磁賦

1946년

선(線)은
가냘핀 푸른 선(線)은
아리따웁게 구울러
보살(菩薩)같이 아담하고
날씬한 어깨에
사월(四月) 훈풍(薰風)에 제비 한 마리
방금 물을 박차 바람을 끄는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千年)의 꿈 고려청자기(高麗靑瓷器)!

빛깔, 오호! 빛깔
살포시 음영(陰影)을 던진 가륵한 빛깔아,
조출하고 깨끗한 비취(翡翠)여,
가을 소나기 마약 지나간
구멍 뚫린 가을 하늘 한 조각
물방울 똑똑 서리어
곧 흰 구름장 이는 듯하다.

그러나, 오호! 이것은
천년(千年) 묵은 고려청자기(高麗靑瓷器)!

술병, 물병, 바리, 사발,
향로(香爐), 향합(香奩), 필통(筆筒), 연적(硯滴),
화병(花瓶), 장고, 술잔, 베개,
흠이면서 옥(玉)이더라.

구름무늬, 물결 무늬,
구슬무늬, 칠보(七寶) 무늬,
꽃 무늬, 백학(白鶴) 무늬,
보상화문(寶相華紋), 불타(佛陀) 무늬,
토공(土工)이요 화가(畫家)더라
진흙 속 조각가(彫刻家)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千年)의 꿈 고려청자기(高麗靑瓷器)!



▶> 초정(趙鼎) 김상옥(金相沃, 1920~2004)

초정 김상옥은 경남 통영출신으로 한국 현대 시조계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이 시의 제목도 청자부이다. 「옥저」, 「청자부」, 「백자부」, 「다보탑」 등 문화재를 소재로 민족 고유의 예술미와 전통적 서정을 노래했다. 이 시들은 당시 국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작품의 결이 고왔다.

그는 ‘아자방(亞字房)’이란 골동품 가게를 열 정도로 도자기 애호가였다고 한다. 보증금이 2,000만원 하던 전세를 살 때 4,000만원 하는 이조백자를 빚을 내 살 정도였다.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시작(詩作)에 영향을 미쳤다. 시인은 “시를 읽고 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서화나 도자기를 보고 시를 배우고 시를 얻는다”고 말할 정도다.

미당 서정주는 초정의 시를 두고 ‘모든 사물을 볼 때 마다 거기 살다가 죽어 간 옛 어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낯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인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눈을 가진 선수’라고 칭찬했다.

靑磁賦

1947년

보면 깨끔하고 만지면 廟출하고
神거러운 손아귀에 한줌 흙이 주물러져
천년(千年)전 봄은 그대로 가시지도 않았네

휘넝청 버들가지 포롬히 어린 빛이
눈물 고인 눈으로 보는 듯 연연하고
몇 포기 난초(蘭草) 그늘에 물오리가 두둥실!

高麗(고려)의 개인 하늘 호심(湖心)에 잠겨 있고
속으린 꽃송이도 향내 곧 풍기거니
두 날개 향수(鄉愁)를 접고 울어볼 줄 모르네

뿔끝으로 꼭 찍은 오리 너 눈동자엔
풍안(風眼) 테 넘어보는 할아버지 입초리로
말없이 머금어 웃던 그 모습이 보이리

어깨 벌숨하고 목잡이 오무속하고
요조리 어루만지면 따스론 임의 손길
千年을 흐른 오늘에 상기 아니 식었네

청자로 맺어진 연

1964년 5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요지조사에서 처음으로 청자기와 자료가 확인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같은 해 9월부터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농사지으면서 보게 되는 사금파리 조각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계속된 발굴조사와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생각도 점차 바뀌어갔다. 삶의 터전인 집과 논밭 곳곳에 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음은 짐작했지만, 문화재로서 고려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강진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다. 이 자긍심은 애향심으로 발전했고 고려청자 재현이라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강진 청자요지 조사와 재현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최순우, 정양모, 정채균, 조기정, 이용희 등이다.





▶ 혜곡(兮谷) 최순우(崔淳雨, 1916~1984)

고려 사람은 높은 지붕위에 하늘을 보고 올라앉은 수키와에까지 왜 모란꽃 넝쿨을 아로새겼을까?

“아마 하느님이 보시라고 그랬나보다”

최순우 선생의 미적인 안목과 감수성이 엮보이는 현답이다. 최순우 선생은 경기도 개성출신의 미술사학자로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냈다.

청자기와의를 만든 요지를 가마터를 찾으라는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1963년부터 강진 청자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64년 5월 사당리 117번지 이용희씨 집 마당 에서 온전한 수키와 1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선생의 오랜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담 밑에 백여 있던 청자향로의 구연부 적은 조각의 비취색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형언키 어렵다. 이러한 우수하고 다양한 청자를 굽던 자리면은 반드시 의종왕의 저 유명한 청자로 지붕덮은 이야기를 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최순우 선생님과 말을 건네지 아니하여도 벌써 마음은 통해 있었다”

- 정양모, 『한국의 관광문화재시리즈』 중에서 -





▶ 소헌(笑軒) 정양모(鄭良謨, 1934~)

고려 사람은 높은 지붕위에 하늘을 보고 올라앉은 수키와에까지 왜 모란꽃 넝쿨을 아로새겼을까?

“가을햇살에 청자가 빛날 때 넝쿨진 당초문이
아름이 춤을 추어 비취빛 아지랑이 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신비로운 꿈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일제강점기의 역사학자인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1893~1950)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62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시작해 관장까지 역임하였다. 1960년대 사당리 23호 요지, 1970년대 사당리 41호 요지, 1980년대 용운리 10호 요지까지 한국도자사 전공자로서 중요한 강진 청자요지 발굴조사를 이끌었다. 1977년 강진군 청자재현사업위원회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 사당리 41호 요지 발굴 (1973년)



▶ 용운리 10호 요지 발굴 (1981년 9월)





▶ 고현(古現) 조기정(曹基正, 1939~2007)

조기정 선생은 전남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1962년 한국자원조사연구회 전남지부장을 맡으면서 고려청자 재현에 첫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4년 무등민예사를 창업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1967년에는 광주 월산동으로 작업장을 옮겼다.(무등도요로 명칭 변경) 1973년 10월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 주최 제1회 인간문화재 공모전 전승자기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나 너무 젊다는 이유로 지정자 선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1986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청자도공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다가 광주광역시 제5호 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1976년 강진 밀알회 주최로 열린 강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이듬해부터는 강진군의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자재현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 무등도요 작업실(1974년 1월)



▶ 강진요 1호 첫 요출 (1978년 2월 3일)



▶ 정채균(丁採鈞)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75년 12월 31일부터 1979년 5월 3일(3년 4월)까지 강진군수를 지냈다. 1977년부터 청자 재현사업을 강진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현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인적으로 서예에 조예가 깊어 청자재현 성공과 강진군의 발전이라는 염원을 담아 '陶瓷中興'이라는 글씨를 남기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고려청자 문화의 우수한 작품들이 우리고장 대구 도요지에서 대부분 생산되었으나 조상들의 우수한 도예기능이 600여 년간 끊어진 채 계승되고 있지 못함을 오래전부터 무척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고려청자 재현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이 고장의 질 좋은 도토와 기후, 수질, 연료 등 자연적인 조건과 청자 연구에 17년,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조기정, 이용희 양씨의 기능을 살리고 계승하는데 지원을 다 함으로써 능히 고려청자 재현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 첫 회의시 정채균 군수 모두발언 중에서(1977년 6월 17일 오후 7시) -



▶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이용희, 조기정, 윤두현, 정채균, 김창식, 성상원 (왼쪽부터 시계방향, 1979년)



▶ 정채균 군수가 적은 陶瓷中興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 동흔(東欣) 이용희(李龍熙, 1939~)

1977년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부터 2005년까지 고려청자 박물관의 작품생산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강진군 청자재현사업의 산증인이다.

조기정 선생과 함께 청자재현에 몰두하면서도 당시 위원회의 문서작성과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실무도 맡았다. 청자요지 안내와 발굴조사된 요지 관리도 같이 담당했다.

고려청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 12세기의 비취색에 병열이 없는 청자를 목표로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온 결과, 2003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 청자장으로 지정받았다. 2008년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수습한 고려청자 편 800여 점과 청자 편을 보고 직접 그린 문양집 3권을 고려청자박물관에 흔쾌히 기증하기도 했다. 현재 자신의 호를 사용한 동흔요를 운영중에 있다.



▶ 용운리 10호 요지 발굴조사 당시 (1982년)



▶ 이용희 선생이 직접 그린 문양집 3권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시대를 반영한 청자우표



1961년 제3공화국 출범이후 문화관련법이 대거 제정되었고, 전통문화 전승사업을 벌였으며,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했다. 고려청자가 국보와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시작한 것은 1962년이었다. 1962년 12월 20일 고려청자 15점이 국보로, 1963년 1월 21일 7점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교부는 1962년부터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0일 정도를 ‘문화재 애호기간’으로 설정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적 운동에 언론도 동참했다. 동아일보는 문화재 ‘애호기’를 맞아 1962년 11월 12일부터 1963년 5월까지 문화재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고자 ‘국보순례’를 연재하기도 했다.



현재 고려청자가 디자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1964년 10월 12일 발행된 것이다. 국보61호 청자어룡형주자 이외에도 1965년까지 진돗개, 인삼, 금강초롱,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세종대왕, 장구와 북, 팔만대장경, 석굴암 보살상 등의 디자인 우표가 제작되었다.



보통우표

디 자 인 : 고려청자어룡형수병 (국보61호)

디자이너 : 강춘환

발 행 일 : 1964. 10. 12.

액면가격 : 5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이후 1966년 체신부는 우편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3종(액면 13원, 60원, 80원)의 우표를 발행하기로 하고, 디자인대상은 고려 미술품중에서 선택하였다. 13원 우표에는 청자사자형향로가, 60원 우표에는 청자투각연당초문주자가 선택되었다. 80원은 우표는 은진미륵이 선정됐다.

또 1964년 최초로 제작한 청자어룡형수병 디자인 우표를 재발행했다.



보통우표

디 자 인 : 청자조각옥사자향로 (국보60호)

디자이너 : 김순득

발 행 일 : 1966. 7. 1.

액면가격 : 13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보통우표

디 자 인 : 청자투각연당초문수병 (소장기관)

디자이너 : 진희한

발 행 일 : 1966. 7. 1.

액면가격 : 60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보통우표

디 자 인 : 고려청자어룡형수병 (국보61호)

디자이너 : 오충환

발 행 일 : 1966. 8. 20.

액면가격 : 5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체신부는 사진 그라비아 우표 인쇄기에 의한 두 번째 작품으로 청자상감 운학모란문표형수병을 주제로 보통우표 20원 권을 발행했다. 고려청자의 우수한 도자기술을 재개발하고 터득하여 세계시장에 진출시켜 우리의 높은 문화적 전통을 다시 한번 과시할 것을 바라면서 이 우표를 발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보통우표

디 자 인 : 고려청자상감운학모란문표형수병 (국보116호)

디자이너 : 강춘환

발 행 일 : 1969. 6. 1.

액면가격 : 20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보통우표

디 자 인 : 청자압형수적 (국보74호)

디자이너 : 진희한

발 행 일 : 1970. 2. 25.

액면가격 : 30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1977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도자기를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다섯 차례로 나누어 도자기 시리즈 우표 10종을 발행했다. 제 1집으로 청자양각죽절문병과 백자철회포도문호를 선정하였다.



도자기 시리즈 (제1집)
 디자인 : 청자양각죽절문병 (국보169호)
 디자이너 : 이근문
 발행일 : 1977. 3. 15.
 액면가격 : 20원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도자기 시리즈 (제2집)
 디자인 : 청자상감모란문항 (국보98호)
 디자이너 : 이근문
 발행일 : 1977. 6. 15.
 액면가격 : 20원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도자기 시리즈 (제2집)
 디자인 : 백자상감유로모란문매병 (보물345호)
 디자이너 : 이근문
 발행일 : 1977. 6. 15.
 액면가격 : 20원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도자기 시리즈 (제3집)
 디자인 : 청자인형주자 (국보167호)
 디자이너 : 이근문
 발행일 : 1977. 7. 15.
 액면가격 : 20원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도자기 시리즈 (제3집)

디 자 인 : 청자과형화병 (국보94호)

디자이너 : 이근문

발 행 일 : 1977. 7. 15.

액면가격 : 20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도자기 시리즈 (제4집)

디 자 인 : 청자철채백화삼엽문매병 (보물340호)

디자이너 : 이근문

발 행 일 : 1977. 8. 15.

액면가격 : 20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도자기 시리즈 (제5집)

디 자 인 : 청자철화양류문통형병 (국보113호)

디자이너 : 이근문

발 행 일 : 1977. 11. 15.

액면가격 : 20원

인 쇄 처 : 한국조폐공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1976년에 일본에서 한국미술 5천년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이어 1979년에는 미국 7개 도시에서 같은 제목의 전시를 열었다. 체신부는 이것을 기념하고 1979년에 전시유물 354점 중 30점을 선정하여 여섯 차례에 나누어 한국미술 5천년 특별우표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고려청자로는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제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 선정되었다.



한국미술 5천년 특별우표
 디자인 :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국보68호)
 디자이너 : 박여송
 발행일 : 1979. 4. 1.
 액면가격 : 20원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1983년에는 고려청자 중에 원앙향로뚜껑과 국보 제95호인 투각칠보향로가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디자인 : 청자조각원앙향로뚜껑
 디자이너 : 김성실
 발행일 : 1983. 6. 15.
 액면가격 : 700원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디자인 : 청자칠보투각향로 (국보95호)
 디자이너 : 김성실
 발행일 : 1983. 7. 20.
 액면가격 : 400원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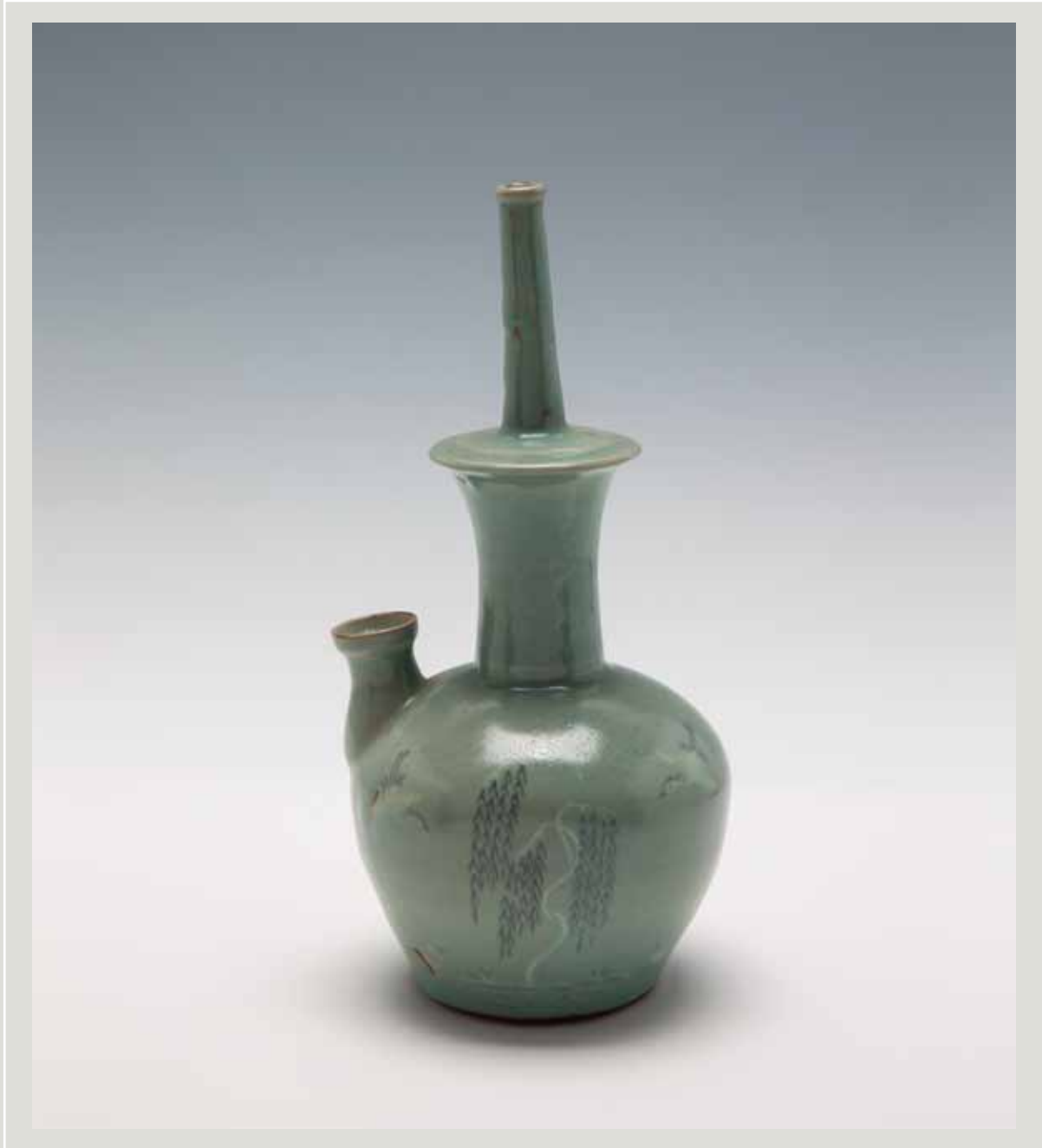


04

영원히 간직될
비취색 꿈, 고려청자



1970年代



청자 상감 류학문 정병 (靑瓷 象嵌 柳鶴文 淨瓶)



청자 퇴화 모란문 양이병 (靑瓷 堆花 牡丹文 兩耳瓶)



청자 상감 국화유로수금문 호 (靑瓷 象嵌 菊花柳蘆水禽文 壺)



청자 철화 초엽문 매병 (靑瓷 鐵畫 草葉文 梅瓶)

1980年代



청자 양각 연화당초문 향로 (靑瓷 陽刻 蓮花唐草文 香爐)



청자 양각 연화당초문 항 (靑瓷 陽刻 蓮花唐草文 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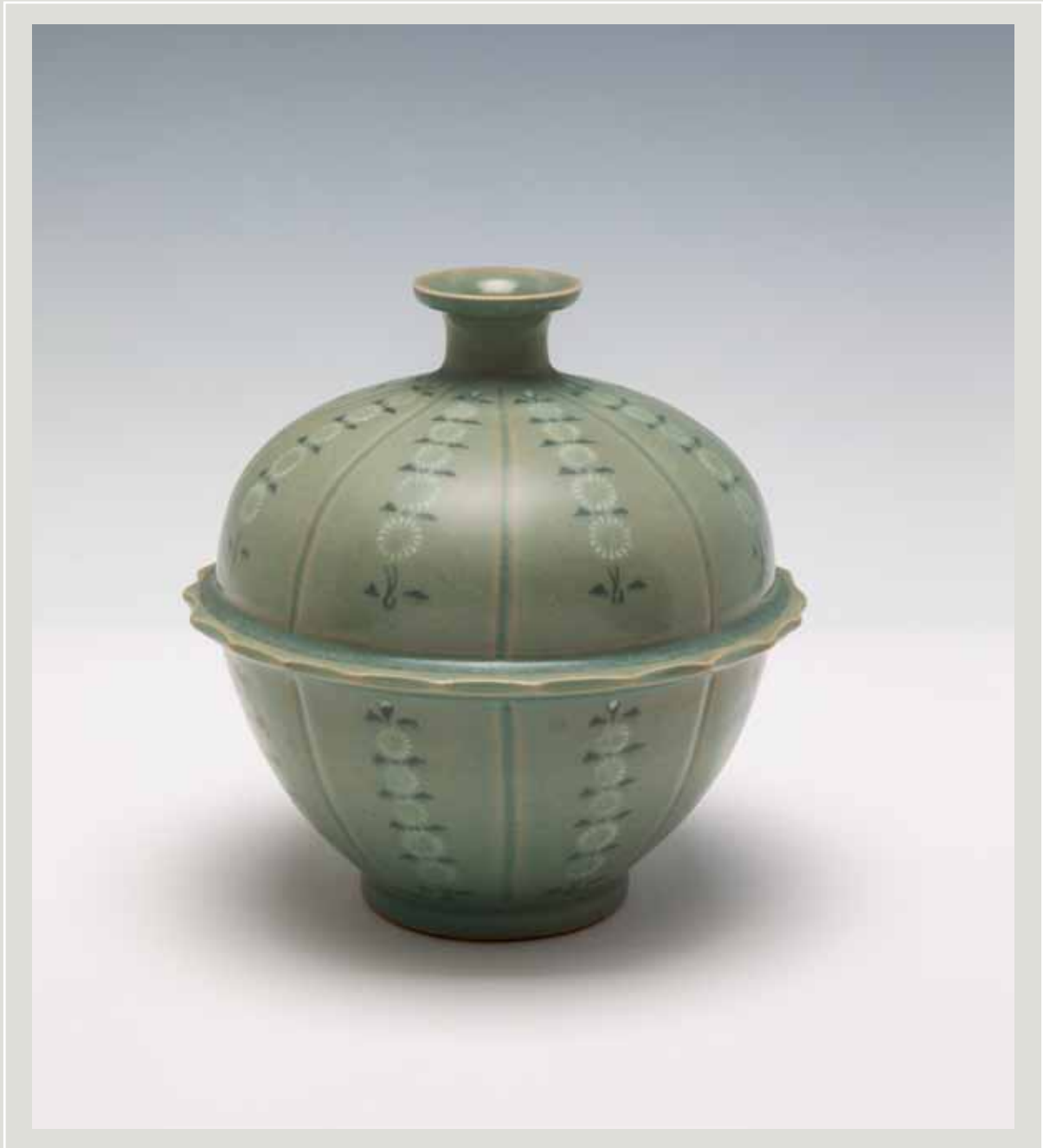


청자 음각 연화당초문 호 (靑瓷 陰刻 蓮花唐草文 壺)



청자 상감 연화당초문 병 (靑瓷 象嵌 蓮花唐草文 瓶)

1990年代



청자 상감 국화문 호 (靑瓷 象嵌 菊花文 壺)



청자 상감 국화문 반 (靑瓷 象嵌 菊花文 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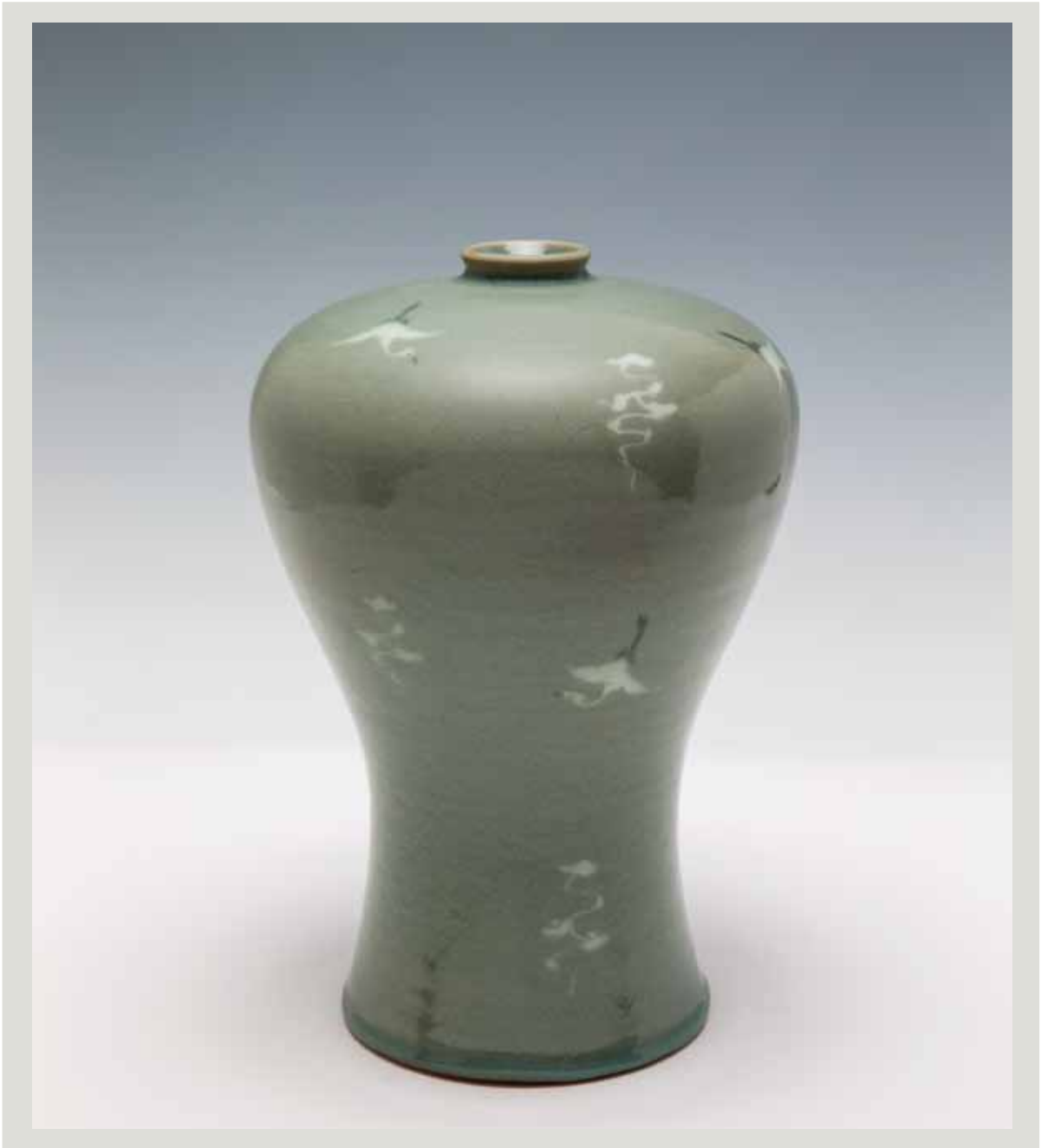


청자 상감음각 송학문 매병 (靑瓷 象嵌陰刻 松鶴文 梅瓶)



청자 상감 매화문 병 (靑瓷 象嵌 梅花文 瓶)

2000年代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靑瓷 象嵌 雲鶴文 梅瓶)



청자 어룡형 주자 (靑瓷 魚龍形 注子)



청자 상감 모란문 항 (靑瓷 象嵌 牡丹文 缸)



청자 상감 황촉규국화문 편병 (靑瓷 象嵌 黃蜀葵菊花文 扁瓶)

2010年代



청자 음각 연화절지문 매병 (靑瓷 陰刻 蓮花折枝文 梅瓶)



청자 상감국화문 팔각 향로 (靑瓷 象嵌 菊花文 八角 香爐)



청자 상감 운학문 병 (靑瓷 象嵌 雲鶴文 瓶)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합 (靑瓷 陰刻 牡丹唐草文 盒)





봄(모란)



연꽃(여름)



국화(가을)



매화(겨울)





고려청자 재현사업 40주년 특별전

강진, 천년 비취색 꿈을 펼치다

전시

기획_ 김중윤, 조은정
진행_ 조은정, 김자룡, 정신일

도록

기획_ 조은정
원고_ 조은정
교정_ 김자룡
사진_ 사진공방끼 박일구

북디자인_ (주)가화

인쇄_ 세영인쇄

발행일_ 2017년 5월 22일

발행처_ 고려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Tel. 061-430-3752 Fax. 061-430-3739 www.celadon.go.kr

© 2017 고려청자박물관

이 도록의 저작권은 고려청자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록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려청자박물관의 문서를 통한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7 Goryeo Celadon Museum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Goryeo Celadon Museum.

고려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Tel. 061-430-3752 Fax. 061-430-3739 www.celadon.go.kr